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의 현대소설 제재 분석

- 2015 국어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 교과서를 중심으로 -

박기범(전주대)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4. 새 문학 교과서의 현대소설 제재
수록의 특징과 개선 과제 탐색 |
| 2. 새 문학 교과서의 개정 방향 | 5. 맺음말 |
| 3. 새 문학 교과서의 현대소설 제재
수록 양상 분석 | |

국문초록

이 글은 2015년에 고시된 국어과 교육과정에 맞춰 새로 개발 보급된 문학 교과서 10종을 대상으로 현대소설 제재들이 어떠한 양상으로 수록되었는지 분석하였다. 먼저 교육과정과 교과서 편찬상의 유의점에서 문학 제재 선정에 관한 지침을 확인해 본 뒤, 교육과정의 세부내용과 관련하여 어떤 작품들이 선정되었는지, 소설 관련 학습 내용 요소와 관련하여 어떤 작품들이 선정되었는지 그 양상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수록된 작품을 대상으로 새로운 작품, 작품 및 작가의 비중 변화, 발표 연대, 외국 문학, 길이 유형 및 수록 방식, 시점과 서술 유형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새 교과서의 특징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향후 문학 교과서를 개발할 때 참고할 개선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교육과정의 내용 중 ‘한국 문학의 개념과 범위’와 ‘한국 문학과 외국 문학’의 내용 요소와 관련된 작품이 적었으므로 앞으로는 이와 관련하여 더 많은 학습 내용이 구안될 수 있도록 관련 작품을 발굴하고 학습 활동을 창안

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2. 소설 이론에 대한 학습 내용 요소 중 아직도 시점, 서술, 문체와 같은 담론적 요소가 적게 다뤄지고 있으므로 좀 더 다양한 시점과 서술의 양상을 보여 주는 작품이 선정될 필요가 있다.

3. 디지털 교과서 정책의 정착과 함께 교과서 출판사의 누리집과 교육 애플리케이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작품 전문을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4. 교과서 분량의 제한에서 벗어나 외국의 훌륭한 문학 작품을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제어 : 문학 교과서, 현대소설 제재, 2015 교육과정, 작품 선정, 수록 작품 분석

1. 머리말

지난 2015년 말에 고시된 새 국어과 교육과정이 고등학교에는 2018년 신입생부터 적용이 되었다. 이들이 2019년부터 배울 선택과목 중 <문학> 과목의 교과용 도서(이하 교과서)는 2018년에 검정 절차가 진행되어 9월 14일에 최종 합격 결정이 공고되었다. 이에 따르면, <문학> 과목의 경우 총 10종(10권)의 교과서가 올해부터 전국의 고등학교에서 사용될 예정인바, 이에 대한 교육계와 학계의 관심이 적지 않다.¹⁾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가 제공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교과서는 교육 현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활용되는 교수·학습 자료이다. 매체 환경의 눈부신 변

1) 본고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문학 교과서를 ‘대표저자(출판사)’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김동환(천재교과서), 김창원(동아출판), 류수열(금성출판사), 방민호(미래엔), 이승원(좋은책신사고), 정재찬(지학사), 정호웅(천재교육), 조정래(해냄에듀), 최원식(창비), 한철우(비상교육)

화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교과서는 교수 학습의 기본 자료로서 가장 중요한 매개체인 셈이다. 그래서 새로 교육과정이 개정되어 이를 적용할 때마다 교과서 개발 작업에 적지 않은 노력과 정성이 기울여졌고, 그 결과물인 새 교과서는 교사나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 종사자들에게 중대한 관심거리가 되었다.

과목의 특성상 문학 교과서의 제재는 음악이나 미술 교과서처럼 예술성과 교육성 측면에서 그 가치가 높이 평가되는 작품들 위주로 선정되어 왔다. 또한 문학 교과서의 내용은 교육과정을 충실히 구현할 수 있는 이론과 실제로 구성되는데, 이때 문학 작품은 이론의 예증 자료이자 실제의 대상 자료로서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 따라서 교과서 집필 과정 중 내용 구성 단계에서 가장 공을 들이는 부분이 바로 작품 선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필자는 지난 제7차 교육과정부터 새로운 교육과정이 개정·고시되어 새 문학 교과서가 나올 때마다, 수록된 문학 작품을 중심으로 교과서의 내용을 분석하고 그 적절성을 평가하는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²⁾ 이와 같은 중단 연구를 통해 제7차 교육과정 때의 문학 교과서부터 지금까지 새로운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보급된 문학 교과서들이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고, 제재 선정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점 등을 논의하면서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려고 노력해 왔다.

이제 또 다시 3년 만에 새 문학 교과서가 나왔으니,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이들을 살펴보는 연구도 다시 수행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주지하다시피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구현체로서 교육과정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과서 개발진은 제일 먼저 교육과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에 적합한 단위 체계를 구안한다. 그리고 전체적인 단원의 조직과 구성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교육과정의 세부 내용에 알맞은 제재를 선정하고

2) 박기범,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문학 교과서의 내용 분석 연구」, 『문학교육학』 제11호, 한국문학교육학회, 2003. ;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의 현대소설 제재 분석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김정 교과서를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제37호, 한국문학교육학회, 2012. ;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의 현대소설 제재 분석」, 『한국언어문학』 제89호, 한국언어학회, 2014.

학습 활동을 만들어 나가게 된다.³⁾

이에 본고는 2015년에 고시된 국어과 교육과정에 맞춰 새로 개발 보급된 문학 교과서를 대상으로 현대소설 제재들이 어떠한 양상으로 수록되었는지 분석하여 그 특징을 알아볼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교육과정과 교과서 편찬상의 유의점에서 문학 제재 선정에 관한 지침을 확인해 본 뒤, 교육과정의 세부내용과 관련하여 어떤 작품들이 선정되었는지, 소설 관련 학습 내용 요소와 관련하여 어떤 작품들이 선정되었는지 그 양상들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수록된 작품을 대상으로 새로운 작품, 작품 및 작가의 비중 변화, 발표 연대, 외국 문학, 길이 유형 및 수록 방식, 시점과 서술 유형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새 교과서의 특징을 확인하고 나아가 앞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도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교과서 현대소설 제재의 수록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교육과정과 교육 현장에서 중시되는 작가와 작품, 학습 내용과 활동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오늘날 현대소설 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작품의 특성과 교육적 수용 양상을 알려줌으로써 교사와 학생에게는 교수·학습의 계획과 실행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교과서 개발진에게는 교과서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가는 데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2. 새 문학 교과서의 개정 방향

2.1. 문학 과목 교육과정의 제재 선정에 관한 내용

2015 고시 국어과 교육과정의 문학 과목에서는 ‘3.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의 ‘나. 성취기준’에서 각 영역별로 제시된 ‘(다)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3) 본고는 교과서에 수록된 문학 작품을 살펴보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교육과정이나 단위 체제에 관한 논의는 제외한다.

사항'의 내용 중에 제재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2) 문학의 수용과 생산

- ③ 학습자의 삶과 가까운 문학 작품을 선정하여 문학 감상의 긍정적인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 ⑦ 작품의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인 연관성을 지도할 때에는 발상의 참신함이나 창의성을 추구한 작품을 감상한 후 그러한 형식적인 특성이 작품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데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생각해 보는 활동을 구성할 수 있다.

(3) 한국 문학의 성격과 역사

- ① 이론적인 배경보다는 문학사에서 중요하게 평가되어 온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 문학의 성격과 역사를 이해하고 경험하도록 지도한다.
- ④ 문학과 역사의 상호 영향 관계를 지도할 때에는 시대 상황이 직·간접적으로 반영된 작품이나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킨 작품 등을 제재로 활용할 수 있으며 작품에 나타난 시대 의식, 인물의 가치관, 배경, 표현 방법 등을 통해 당대의 사회를 살펴보는 활동, 작품의 역사적 배경을 오늘날의 사회 상황과 비교하거나 작품의 현재적 가치를 평가하는 활동을 구성할 수 있다.
- ⑤ 한국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지도할 때에는 동일한 소재, 유사한 주제 의식 등이 드러난 한국 문학과 외국 문학 작품, 학습자에게 친숙한 동화나 옛이야기 등을 제재로 활용하되, 균형 잡힌 시각으로 한국 문학과 세계 문학을 감상하도록 한다.

이전의 2009나 2012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재 선정과 관련해서는 '교수·학습 방법'의 '교수·학습 계획'에서 간단하게 한 개의 단락 정도로 제시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위와 같이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교재 선정을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과 관련하여 좀 더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4.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의 '가. 교수·학습 방향'에서도 제재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 * ‘문학’의 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의 성격을 고려하여 책, 신문, 전화, 라디오, 사진, 광고, 영화, 텔레비전, 컴퓨터, 인터넷, 이동 통신 기기 등으로 전달되는 다양한 매체 자료를 활용하고, 퀴즈, 면담, 매체 자료 제작 활동, 프로젝트 활동, 문제 해결 활동 등 적절한 교수·학습 방법을 선택하여 운용하되, 학습자 참여형 교수·학습이 되도록 한다.
- * 학습 자료나 제재의 선정, 학습 활동 설계, 교수·학습 방법의 선택과 활용, 수업 과정에서의 발문 등 다양한 차원에서 인성 함양을 고려하며 교수·학습을 계획한다.
- * 문학 창작 활동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학습자에게는 친숙한 매체 자료를 예로 제시하여 창의적인 재구성 활동을 유도한다.
- * 문학 독서와 창작의 경험은 그 자체로 학습자의 성장에 유의미한 계기를 줄 수 있으므로 학습자 개인의 취향이나 수준, 학습자가 처해 있는 환경을 고려하여 작품을 선정하고 교수·학습 활동을 제공한다.
- *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만이 아니라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학교 도서관 소장 작품이나 지역 문화 콘텐츠 등을 두루 활용하여 교수·학습을 운용한다.
- * 교과서에 얽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계절, 학사 일정, 사회적 쟁점, 지역 사회의 관심사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그와 관련된 작품을 선정하여 교수·학습을 운용한다.

이처럼 2015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이전 교육과정 때보다 제재 선정과 관련된 내용을 매우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즉, 새 교육과정에서는 인성 함양뿐만 아니라 학습자에게 친숙한 매체 자료, 학습자 개인의 취향이나 수준, 학습자가 처해 있는 환경, 학습자 요구 반영, 교과서 밖의 다양한 관심사 등을 반영하여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교수·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작품을 선정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2.2. 문학 교과서 집필상의 유의점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주관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표하는 ‘교과용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에는 검정 대상이 되는 과목별로 교과서의 개발 방향, 구성 체제, 내용의 선정과 조직 등에 관한 편찬상의 유의점과 세부적인 검정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이번 새 교과서의 검정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이 발표되었는데, 그 중에서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의 편찬상의 유의점 중 ‘내용의 선정’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⁴⁾

- (1) 교육과정에 제시된 목표와 성취기준에 적합한 내용을 선정하되,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수준 및 범위를 적정화하여 제시한다.
※ ‘학습요소’ 외의 내용을 추가하지 않도록 한다.
- (2)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와 ‘학습 요소’를 참고하여 내용의 수준과 범위를 설정하되, 고등학교 국어 과목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한다.
- (3)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며 적극적인 활동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하되, 학습자의 실제 언어생활을 고려하여 비교과 활동 및 학교 밖 생활 속에서 주제, 소재, 제재 등을 선정한다.
- (4) 학습 내용은 특정 지역, 인물, 성, 상품, 기관, 종교 등을 왜곡, 비방, 옹호하거나 집필자 개인의 편견이 들어가지 않도록 선정한다.
- (5) 제재는 특정 시대, 지역, 분야, 작가(특정 성 포함)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 있게 선정한다.
- (6) 발췌된 제재를 학습하는 데에서 나아가 제재가 포함된 한 편의 글을 읽도록 유도함으로써 심층적인 문학 독서 경험이 이루어지도록 내용을 선정한다.
- (7) 제재를 선정할 때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 (가) 문학사적 기준과 비평적 안목에 비추어 문학적 교육적 가치가 높은 작품을 선정한다.
 - (나) 내용과 형식, 표현 면에서 문학의 전범이 되면서 창의성과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작품을 선정한다.

4)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개발을 위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 교과서검정센터 홈페이지 정보마당, 2016년 1월, 142면.

- (다) 학습자의 관심 및 생활 경험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작품을 선정한다.
 - (라) 통일 시대를 대비하여 문화적 동질감을 고취할 수 있는 작품을 선정한다.
 - (마) 인류의 문화적 다양성을 폭넓게 경험할 수 있는 작품을 균형 있게 선정한다.
 - (바) 지역, 성, 인종, 민족, 계층, 직업, 종교, 신체적·정신적 특성 등의 측면에서 편견을 갖게 할 수 있는 작품을 피하고, 타인의 삶과 다른 문화에 대해 이해와 공감을 넓힐 수 있는 작품을 선정한다.
 - (사) 사회적 소수자나 약자의 삶에 대한 관심과 배려의 자세를 기를 수 있는 작품을 선정한다.
 - (아) 국어 문화 창조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적합한 작품을 선정한다.
- (8) 작품 전체를 원문대로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약, 발췌, 수정하거나 주석을 달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교과서 편찬상의 유의점이 매우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사실 이것은 직전의 201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 때의 편찬상의 유의점과 비교해 볼 때, 새롭게 많은 내용이 첨가된 측면이 있다. 2012 때는 2009 때 보다 일부 항목은 삭제되었고, 일부분은 더욱 명료하게 수정되었다면, 이번 2015의 편찬상의 유의점은 기존의 2012에서 삭제된 내용은 거의 없고 그 바탕 위에서 새로 몇 가지 항목을 추가한 것으로 보면 된다.

구체적으로 추가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필자가 밑줄로 표시였는데, 이번의 교과서 편찬상의 유의점으로는 학생들의 부담이 많지 않게 학습 내용을 제한할 것, 국어 과목과의 연계성을 고려할 것, 학습자의 실제 언어생활과 관련하여 비교과 활동 및 학교 밖 생활 속에서 주제, 소재, 제재를 선정할 것, 작가의 성별 균형성을 도모할 것, 한 편의 전문을 읽도록 유도할 것 등을 주문하였다.

이에 따라 새로 문학 교과서를 개발하는 사람들은 이상의 제재 선정의 유의점을 염두에 두고 최선의 작품을 수록하기 위하여 노력했을 것으로 짐작

된다. 그 노력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3. 새 문학 교과서의 현대소설 제재 수록 양상 분석

3.1. 교육과정의 내용 관련 작품 선정 양상 분석

2015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른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현대소설 작품 중 본 고에서 대상으로 삼은 작품은 총 110편이다.⁵⁾

먼저 새 문학 교과서에서 2015 국어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 요소와 성취기준에 따라 어떤 현대소설 제재들이 선정되었는지 살펴보았다. 2015 교육과정에서 문학 과목의 영역별 내용 요소와 성취기준은 [표 1]과 같다.⁶⁾

[표 1] 2015 국어과 교육과정 문학 과목의 영역별 내용 요소와 성취기준

영역	내용 요소	성취기준
문학 의 본질	인간과 세계의 이해 삶의 의미 성찰 정서적·미적 고양	[01-01] 문학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며, 정서적·미적으로 삶을 고양함을 이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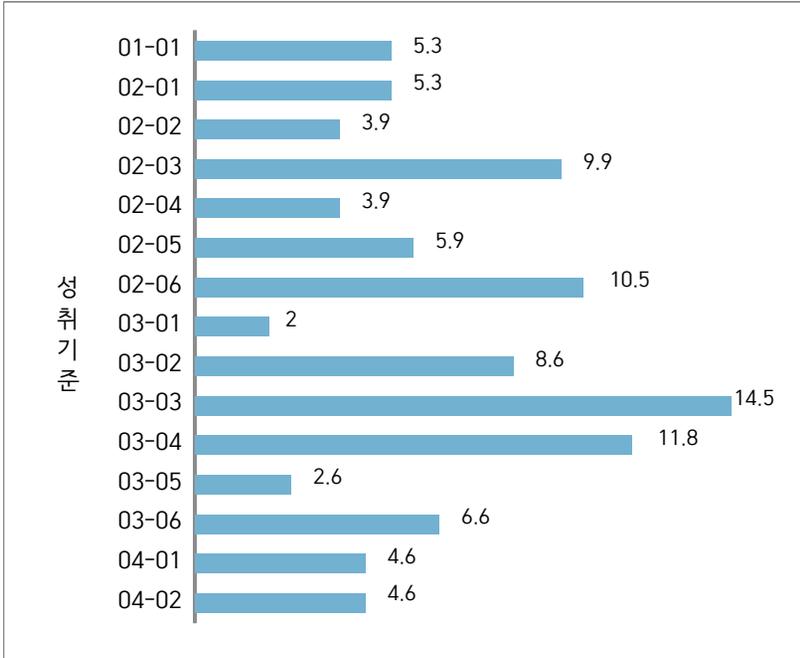
5) 본고에서는 현대소설 제재의 범위로 한국 문학의 경우 신소설을 포함시켰으며, 외국 문학의 경우도 현대 소설에 해당되는 작품들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교과서에서 소단원이나 학습 활동의 중심 제재로 제시된 작품만을 대상으로 삼았으며 단원 끝부분에서 관련된 작품 더 읽어보기 차원에서 작품의 줄거리나 해제만 제시한 경우는 제외하였다. 동일한 작품이 여러 교과서에 중복 수록된 경우에도 각각 별개의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이기에 수록 작품 수는 총 110편이었다. 이는 교과서 당 평균 11편에 해당되므로 지난 2012 때의 교과서가 11종 199편으로 교과서 당 평균 18.1편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많이 줄어든 것이다.

6) 국가교육과정 정보센터(<http://ncic.re.kr>) 교육과정 자료실 참조.

문학 의 수용 과 생산	작품의 내용과 형식	[02-01] 문학 작품은 내용과 형식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이루어짐을 이해하고 작품을 감상한다.
	작품의 맥락	[02-02] 작품을 작가, 사회·문화적 배경, 상호 텍스트성 등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감상한다.
	문학과 인접 분야	[02-03] 문학과 인접 분야의 관계를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며 평가한다.
	작품의 수용과 소통	[02-04] 작품을 공감적, 비판적,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호 소통한다.
	작품의 재구성 과 창작	[02-05] 작품을 읽고 다양한 시각에서 재구성하거나 주제적인 관점에서 창작한다.
	문학과 매체	[02-06] 다양한 매체로 구현된 작품의 창의적 표현 방법과 심미적 가치를 문학적 관점에서 수용하고 소통한다.
한국 문학 의 성격 과 역사	개념과 범위	[03-01] 한국 문학의 개념과 범위를 이해한다.
	전통과 특질	[03-02] 대표적인 문학 작품을 통해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을 파악하고 감상한다.
	갈래별 전개와 구현 양상	[03-03] 주요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 문학의 갈래별 전개와 구현 양상을 탐구하고 감상한다.
	문학과 시대 상황	[03-04] 한국 문학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문학과 역사의 상호 영향 관계를 탐구한다.
	한국 문학과 외국 문학	[03-05] 한국 문학과 외국 문학을 비교해서 읽고 한국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파악한다.
	한국 문학의 발전상	[03-06] 지역 문학과 한민족 문학, 전통적 문학과 현대적 문학 등 다양한 양태를 중심으로 한국 문학의 발전상을 탐구한다.
문학 에 대한 태도	자아 성찰, 타자 이해	[04-01] 문학을 통하여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하며 상호 소통하는 태도를 지닌다.
	공동체의 문화 발전	[04-02] 문학 활동을 생활화하여 인간다운 삶을 가꾸고 공동체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지닌다.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현대소설 작품들은 새 교육과정의 성취기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야 한다. 그런데 교과서마다 단원 구성과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특정 작품이 서로 다른 성취기준과 관련될 수 있으며, 혹은 한 작품이 여

러 가지 성취기준과 엮어서 활용되기도 한다. 여기서는 문학 교과서에서 교육과정의 15개 성취기준별로 현대소설 제재가 얼마나 수록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아래 [그림 1]과 같이 각 성취기준별로 수록된 작품 수를 백분율로 나타내 비교해 보았다.



[그림 1] 2015 문학 교과서의 교육과정 성취기준별 현대소설 제재 수록 비중

15개 성취기준 중에서 현대소설 제재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03-03이었는데, 이 성취기준은 ‘갈래별 전개와 구현 양상’을 내용 요소로 하기 때문에 갈래별로 주요 작품들을 많이 다룰 것이기 때문에 현대소설만 많이 활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제외하면 03-04 ‘문학과 시대 상황’을 내용 요소로 하는 성취 기준에는 현대소설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높은 비중으로 현대소설 제재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성취기준은

02-03과 02-06이었는데, 이들은 ‘문학과 인접 분야’와 ‘문학과 매체’로서 이러한 내용 요소 역시 현대소설 작품이 제재로 선호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각 내용 요소와 관련하여 현대소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2015 교육과정에서 ‘문학의 본질’ 영역에 해당하는 내용 요소는 ‘인간과 세계의 이해, 삶의 의미 성찰, 정서적·미적 고양’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서 새 문학 교과서 10종 중에서 8종의 교과서에서 단원을 설정하였는데, 모두 서로 다른 현대소설 제재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문학의 기능과 가치에 해당하는 이러한 내용 요소가 교과서에 수록되어 가르칠 정도의 작품이라면 모든 제재에 이러한 기능과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특정 작품이 선호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일 것이다. 다만 나머지 2종의 교과서의 경우에는 이 내용 요소와 관련하여 현대시나 고전 작품을 제재로 활용하였다.⁷⁾

‘문학의 수용과 생산’ 영역 중 ‘작품의 내용과 형식’과 관련해서는 10종의 교과서 중에서 6종의 교과서에서 단원을 설정하여 현대소설 제재를 제시하였는데, 그중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이 2종의 교과서에 중복되었다.

‘작품의 맥락’과 관련해서는 10종의 5종의 교과서에서 단원을 설정하여 현대소설 제재를 제시하였는데, 그중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 2종의 교과서에 중복되었다.

‘문학과 인접 분야’는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문학과 매체’와 함께 단원을 구성하여 다루어지고 있는데, 10종 모두 현대소설 제재를 중심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중에서 특히 이번 새 문학 교과서에서는 「메밀꽃 필 무렵」이 4종에, 「남한산성」이 2종의 교과서에 중복 수록되었다. 하지만 이 제재들과 관련하여 인접 분야로 제시된 영역이 주로 영화(TV드라마)나 애니메이션(만화)에 집중되어 있으며 역사, 블로그, 그림과 관련해서 각 1종씩에서만 다루고 있어서, 이전 교육과정 때의 문학 교과서가 인문, 예술, 사회, 역사, 과학, 대중

7) 이 밖에 다른 내용 요소와 관련해서도 현대소설 작품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부분 현대시나 고전 작품을 활용하여 해당 내용 요소를 다루고 있었다.

문화,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와 관련지으며 영화나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인터넷 포털과 SNS 등의 매체를 통해 소통되는 제재들을 많이 활용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오히려 축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작품의 수용과 소통’과 ‘작품의 재구성과 창작’은 하나의 단원으로 묶어서 함께 다루기도 하고, 각각 별개의 단원으로 설정되기도 하였는데, 현대소설 제재로 ‘작품의 수용과 소통’만 독립적으로 다룬 교과서는 2종인데 비해, ‘작품의 재구성과 창작’만 독립적으로 다룬 교과서는 6종이나 되었다. 둘 다 함께 다룬 교과서는 3종이었다. 그중에서 「허생의 처」가 작품 재구성과 관련하여 2종의 교과서에 중복 수록되었다. 이 밖에 특이한 점으로는 이 내용 요소와 관련하여 기존의 교과서에 수록된 적이 없는 새로운 작품이 많이 선보이고 있다는 점인데, ‘작품의 수용과 소통’과 관련해서는 서유미의 「스노우맨」이, ‘작품의 창작’과 관련해서는 성석제의 「아무도 모르라고」와 「처삼촌 묘별초하기」, 이기호의 「우리에게 일 년 누군가에게 칠 년」과 같은 짧은 콩트가 활용되었다.

‘한국 문학의 성격과 역사’ 영역 중 ‘개념과 범위’는 10종 중 3종의 교과서에서 각각 김학철의 「격정 시대」, 백남룡의 「생명」, 홍석중의 「황진이」와 같이 중국과 북한의 동포 작가가 쓴 현대소설 작품들을 활용하였다.

‘전통과 특질’은 10종의 모든 교과서에서 단원으로 설정되어 현대소설 작품이 제재로 활용되고 있는데, 단독으로나 혹은 ‘갈래별 전개와 구현 양상’과 함께 다루지고 있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을 ‘풍자와 해학’을 중심으로 설명하면서도 작품은 한 작품도 중복되지 않았다. 그만큼 풍자와 해학을 특징으로 하는 현대소설 작품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작품은 중복되지 않았지만, 김유정, 채만식, 이문구의 작품들이 2편씩 수록된 것으로 볼 때, 이들이 우리 문학사에서 ‘풍자와 해학’을 대표하는 작가라는 인식이 틀림없음을 확인시켜 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갈래별 전개와 구현 양상’도 10종 모든 교과서에서 단원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특히 이 내용 요소와 관련해서는 서사 갈래의 대표 양식인 현대소설

중에서 과연 어떤 작품이 가장 선호되는지가 궁금해지는데, 이번 교과서에서는 염상섭의 「만세전」과 최인훈의 「광장」이 각각 3종에, 조세희의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 2종에 수록되었다. 이처럼 이 연구가 시작된 지난 7차 문학 교과서에서부터 지금까지 줄곧 현대소설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빠지지 않고 여러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것으로 볼 때, 이 세 작품이야말로 우리의 현대소설 교육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라 할 만하다.

‘문학과 시대 상황’도 앞의 ‘갈래별 전개와 구현 양상’과 함께 다루지는 경우가 많은데, 현대소설 수록 양상도 바로 위의 양상과 대동소이하다. 다만 이 내용 요소와 관련해서는 조세희의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 연작소설인 「은강 노동 가족의 생계비」까지 포함해서 10종 중 4종에 걸쳐 중복 수록된 점이 주목된다.

‘한국 문학과 외국 문학’은 3종의 교과서에서 현대소설 제재를 활용하여 다루고 있는데, 박완서의 「그 여자네 집」과 제임스 조이스의 「망자(The Dead)」를 비교하는 교과서와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을 통해 우리 문학에서 ‘변신 모티프’를 활용한 작품을 찾아보는 활동을 하는 교과서가 있었다. 또 어떤 교과서는 한강의 「채식주의자」가 한국 문학의 세계화 측면에서 조명하였다.

‘한국 문학의 발전상’은 6종의 교과서에서 현대소설 제재를 활용하여 다루고 있는데, 황석영의 「개밥바라기 별」과 홍석중의 「황진이」가 2종에 중복 수록되었다. 앞의 작품은 현대적 문학이라는 측면에서, 뒤의 작품은 한민족 문학이라는 측면에서 한국 문학의 발전상을 보이는 대표작으로 선정되었다.

‘문학에 대한 태도’ 영역 중 ‘자아 성찰, 타자 이해’와 관련해서는 10종의 교과서 중에서 6종의 교과서에서 현대소설 제재를 제시하였는데, 그 중에서 양귀자의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가 2종에 중복 수록되었다. 이 내용 요소와 관련해서도 최은영의 「썩짜오, 썩짜오」와 김애란의 「입동」과 같이 새로운 작품이 선보였다.

‘공동체의 문화 발전’과 관련해서는 6종의 교과서에서 현대소설 제재를 활용하였는데, 중복되는 작품은 없었으며, 권정생의 「빼빼기」가 새롭게 선정된

집이 눈에 띄었다.

3.2. 학습 내용 요소 관련 작품 선정 양상 분석

여기서는 새 문학 교과서에서 현대소설과 관련하여 학습하게 되는 내용 요소, 즉 소설 이론과 관련하여 어떤 작품들이 선정되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와 함께 소설에 관한 지식 범주 중에서도 어떤 내용이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학습되는지도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소설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서와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참고하여 소설 이론을 이루는 지식 체계를 [표 2]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⁸⁾

[표 2] 현대소설 관련 학습 내용 요소

이야기	인물	성격, 심리, 태도, 형상화, 관계, 갈등
	시공간	시공간의 의미/기능, 묘사
	플롯	행동, 사건, 구성
담론	초점화자/시점, 서술자/서술, 문체, 기법, 표현 방식	
맥락	소통	작가적 맥락(창작동기), 소통 맥락, 독자
	유형	갈래적 특성, 제목의 의미
	사회·문화·상호텍스트적 맥락	

인물에 관한 학습에 많이 활용된 현대소설 작품으로는 염상섭의 「만세전」, 양귀자의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채만식의 「미스터 방」과 「태평천하」, 성석제의 「황만근은 이렇

8) 본고는 소설에 관한 학습 내용 요소를 소설의 서사 갈래적 특성을 고려하여 내용적 측면인 ‘이야기(story)’ 범주와 형식적 측면인 ‘담론(discourse)’ 범주, 그리고 이들의 소통적 측면인 ‘맥락(context)’ 범주로 나누어 정리해 보았다. 이러한 체계는 기준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문학 교과서마다 이러한 내용 요소들을 분류하고 제시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랐다.

게 말했다」 등으로 이전의 문학 교과서에서부터 많이 활용되어 왔던 익숙한 작품들이었다. 다만 홍석중의 「황진이」가 이번에 새 문학 교과서에서 인물에 관한 학습에서 새롭게 선보인 작품이었다.

이전의 문학 교과서에서 시공간의 의미와 기능에 대한 학습 활동은 대개 여로형 소설이나 농촌 소설에 속하는 작품에서 수행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여로형 소설에서 인물이 거쳐 가는 시공간들이 작품에서 중요한 의미와 기능을 가지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이번 새 문학 교과서에서도 이전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염상섭의 「만세전」,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이 수록된 교과서에서는 어김없이 이 작품을 통해 시공간의 의미와 기능에 관한 학습을 하도록 하고 있었다. 반면에 지난 2012 문학 교과서 때와 마찬가지로 그 이전까지 많이 활용되었던 황석영의 「삼포 가는 길」, 김승옥의 「무진 기행」은 다루지 않고 있다. 또한 이전에는 농촌이나 산골을 배경으로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공간의 전통적 의미를 부각시킨 이문구와 김정한의 작품들도 이번 교과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 대신 현진건의 「고향」, 최인훈의 「광장」, 김훈의 「남한산성」,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등의 작품에서 공간과 그 변화가 갖는 의미를 생각해 보는 학습 요소를 다루고 있었다.

이번 새 문학 교과서에서도 직전의 2012 문학 교과서 때와 마찬가지로 플롯이나 구성에 대한 학습 활동이 과거에 비해 많이 줄었다. 지난 7차나 2009 교육과정 때의 문학 교과서에서는 액자구성이나 여로형 구성을 보이는 소설들을 많이 활용하여 소설의 구성이나 플롯에 대해 공부하였는데, 최근에 올수록 이 내용 요소에 관한 학습 활동이 눈에 띄게 줄고 있다. 이번 교과서에도 직전의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액자 구성과 관련해서는 이청준의 「병신과 머저리」를, 여로형 구성과 관련해서는 염상섭의 「만세전」을 활용한 교과서가 각각 1종에 불과하였다. 그 밖의 과거 회상의 역순행적 구성이나 시간 순서적 사건 전개 구성의 특징과 효과에 대해서는 각각 박완서의 「엄마의 말씀」과 이기호의 「우리에게 일 년 누군가에게 칠 년」이 활용되고 있었다.

담론적 요소의 학습에 활용된 소설은 이전의 문학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과 채만식의 「태평천하」가 각각 2종의 교과서에서 서술상의 특징에 관해 학습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주로 1인칭 시점을 인칭 시점 서술을 취하는 소설들을 대상으로 초점화자나 시점에 대해 설명했던 과거의 교과서와 달리 이번 문학 교과서에서는 상호텍스트적 관계에 있는 작품들을 대상으로 서술상의 특징을 비교하도록 하는 활동이 많았는데, 특히 이기영의 「고향」과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과, 염상섭의 「만세전」이 서로 비교되거나 이남희의 「허생의 처」를 고전소설 「허생전」과 비교하는 교과서들이 있었다. 특히 이번에 처음 선보이는 김숨의 「뿌리 이야기」, 최은영의 「썩짜오, 썩짜오」와 같은 최신작이나 이인직의 「혈의 누」나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와 같이 신소설 및 해외 유명 소설을 수록하여 이들 작품의 시점과 서술상의 특징을 다루고 있는 점도 주목되었다.

한편, 매체와 관련된 내용은 오늘날 문화적 배경과 소통 상황을 반영하여 교육과정 차원에서도 비중이 높게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번 문학 교과서에서도 다양한 인접분야와 대중매체를 통해 교섭하는 현대소설 양상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었다. 자세한 수록 양상은 앞 절에서 교육과정 내용별로 분석하여 제시한 바와 같다.

소통에 관한 학습 중에서 작가적 측면에서 창작 동기나 의도를 살펴보기 위해 조세희의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채만식의 「태평천하」, 이남희의 「허생의 처」가 각각 2종씩의 교과서에서 이와 관련된 학습 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그 밖에 은희경의 「소년을 위로해 줘」나 공선옥의 「명랑한 밤길」, 김훈의 「남한산성」과 같은 작품도 이와 관련하여 활용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특이한 점으로는 특정 교과서에서 현대소설 제재를 활용하여 그 작품의 창작 동기나 의도를 학습 내용으로 강조하는 교과서가 눈에 띄었는데, 10종의 교과서 중에 「정재찬(지학사)」와 「김동환(천재교과서)」가 이에 해당되는데, 이들 교과서에서는 현대소설 제재마다 작가적 맥락에서 작품의 창작 동기나 의도를 살펴보는 활동을 하고 있었다.

유형에 관한 학습에서는 문학사에서 대표적인 소설 작품으로 꼽히는 작품들이 많이 활용되었는데, 예전부터 가장 많이 활용되어 왔던 소설들, 「만세

진],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광장」,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서울, 1964년 겨울」 등을 통해 소설 갈래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교과서에서 소설 갈래와 관련된 학습에서 보이는 특징으로는 한 작품을 주요 제재로 제시한 뒤에 학습 활동에서 그와 관련된 다른 소설 작품도 짧게나마 같이 엮어서 다루면서 소설 갈래에 대한 공통된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는 교과서가 많이 있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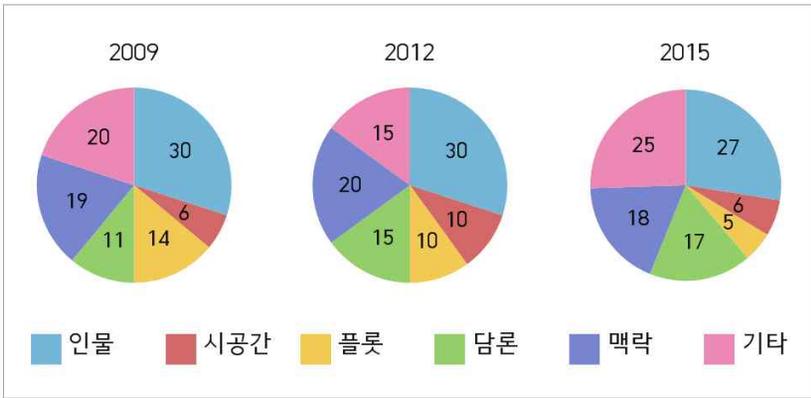
한편, 작품의 제목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도 많은 작품들이 동원된 바, 그 중에 최인훈의 「광장」, 조세희의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채만식의 「태평천하」가 이전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여러 교과서에서 활용되고 있었다.

사회·문화적인 맥락에 관한 학습에 많이 활용된 작품은 이전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주로 리얼리즘 계열의 작품들이었다. 우리나라의 리얼리즘 소설들은 일제 식민지 시대, 이념 대립으로 인한 민족상잔의 전쟁과 남북 분단 시대, 급속한 산업화와 개발 독재 시대를 거치면서 소외되고 억압받던 민중들이 모순된 현실을 인식하고 부정하는 이야기를 형상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이해된다.

이상으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여 새 문학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현대 소설 관련 내용 요소별 학습 활동의 비중을 알아보면, 이야기 범주에 관한 내용 중 인물에 관한 학습이 약 27%, 시공간이 6%, 플롯이 5% 정도이고, 시점, 서술, 문체와 같은 담론 범주는 약 17%, 작품을 둘러싼 여러 가지 맥락 관련 범주가 18%였다. 이 밖에 디지털 문학, 통일 이후의 문학, 세계 문학과 비교, 창작 교육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현대소설 관련 내용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학습 내용이 이번 새 문학 교과서에서는 제법 많은 25%의 비중을 차지했다.

[그림 2]를 보면, 담론 범주는 최근으로 올수록 학습 비중이 늘고 있으며, 그 대신 플롯이나 구성에 해당되는 내용은 점차 줄고 있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의 선행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바, 이야기나 맥락 범주에 비해 소홀한 소설의 시점 및 서술에 관한 교육을 강조했던 내용이 많이 반영된 결과로서 긍정적인 변화라 평가된다. 또한 직전의 2012 교

육과정 때의 문학 교과서가 지나치게 사회·문화적인 맥락에 경도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는데⁹⁾, 이번 새 교과서에서는 맥락 관련 내용이 다소 줄었으며, 특히 작품의 사회·문화적인 맥락뿐만 아니라 작가적 맥락이나 상호텍스트적 맥락도 많이 다루고 있는 점도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림 2] 2009~2015 교육과정기의 문학 교과서 현대소설 관련 학습 내용 비중 비교

하지만 여전히 현대소설 체재를 가지고 수행하는 학습 활동의 절반 이상이 인물, 시공간, 플롯과 같은 이야기적 요소에 관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소설 갈래의 내용이 바로 어떤 인물이 특정 시공간에서 겪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들 요소를 가장 핵심적인 학습 내용으로 삼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또한 근대 이후 소설에서 개성적인 인물의 창조가 주요 관심사가 되면서 소설교육에서 인물의 비중이 커졌다고도 볼 수 있다. 즉 단순하게 유형화된 인물로는 오늘날의 복잡한 인간의 삶의 본질을 제대로 형상화하기 어려워 점점 더 밀도 있는 인물의 탐구와 창조가 요구되기 때문에 인물에 대한 학습 활동이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9) 박기범, 앞의 논문, 2014, 206~207면.

3.3. 수록 작품 분석

이제 여기서는 새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현대소설 제재를 대상으로 새로운 작품의 비율, 작품 및 작가의 비중, 발표 연대별 비중, 외국 문학 작품의 비율, 작품 길이 유형 및 수록 방식, 시점과 서술 유형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먼저 이번 새 문학 교과서에 와서 새로 선정된 작품을 살펴보면, 전체의 약 25%인 27편이었다. 이는 지난 2012 문학 교과서가 수록 작품의 21%가 새로 선보인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새로 수록된 문학 작품은 그동안 어떤 이유로 인해 수록되지 못했으나 교과서의 개발진에 의해 전격적으로 수용된 경우와, 시기적으로 최근작인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에 해당되는 작품으로는 이기영의 「고향」, 김유정의 「떡」, 이호철의 「나상」, 박완서의 「겨울 나들이」, 박경리의 「시장과 전장」, 권정생의 「빼빼기」 등이 있다. 이 작품 중에서 이기영의 「고향」의 경우에는 작가의 월북 이후의 이력 때문에 그동안 교과서 수록에 주저하는 측면이 있었을 것이고, 나머지 작품들은 작품이 담고 있는 내용이나 작품성 측면에서 동일 작가의 다른 작품에 비해 뚜렷하게 선택해야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번에는 몇몇 교과서 개발진에 의해 전격적으로 새롭게 선보이게 되었다. 천재교과서(김동환 외), 창비(최원식 외), 금성출판사(류수열 외)가 이번에 새로운 작품을 상대적으로 많이 수록한 교과서였다.

그리고 후자에 해당되는 작품은 대략 2000년대 이후에 발표된 최근작들로 성석제의 「내가 그린 히말라야시다 그림」, 「아무도 무르라고」, 「처삼촌 묘 별초하기」, 「투명 인간」, 김애란의 「도도한 생활」, 「두근두근 내 인생」, 「입동」, 김숨의 「뿌리 이야기」, 금희의 「세상에 없는 나의 집」, 서유미의 「스노우맨」, 최은영의 「썩짜오, 썩짜오」, 이기호의 「우리에게 일 년 누군가에겐 칠 년」, 한강의 「채식주의자」 등이다.

앞서 2장에서 새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집필상의 유의점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이번 문학 교과서에서는 학생들이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그들의 실제 생활과 연계되는 참신한 작품을 강조하였기에, 이번 문학 교과서에서도 최근의 사회 문화적 맥락을 반영하는 작품들을 많이 수록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새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의 비중을 과거 제7차 교육과정 때¹⁰⁾와 2009 개정 교육과정 때의 문학 교과서와 비교하여 그 변화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표 3]과 같이 대비해 보았다.

[표 3] 제7차~2015 교육과정 문학 교과서의 중복 수록 현대소설 작품

7차 문학 교과서		2009 문학 교과서		2012 문학 교과서		2015 문학 교과서	
10종	광장(최인훈)	8종	무정(이광수)	9종	광장(최인훈)	7종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조세희)
9종	메밀꽃 필 무렵(이효석),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조세희)	7종	만세전(염상섭), 광장(최인훈)	8종	-	6종	-
8종	무정(이광수), 비오는 날(손창섭)	6종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박태원),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조세희), 토지(박경리), 사평역(임철우)	7종	태평천하(채만식)	5종	메밀꽃 필 무렵(이효석)
7종	동백꽃(김유정), 운수 좋은 날(현진건)			6종	만세전(염상섭), 토지(박경리)		
6종	고향(현진건), 금수회의록(안국선), 무진기행(김승옥), 삼포 가는 길(황석영), 수난 이대(하근찬), 아큐정전(루쉰), 역마(김동리)	5종	돈키호테(세르반테스), 삼포 가는 길(황석영)	5종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조세희)	4종	광장(최인훈), 만세전(염상섭),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양귀자)

10) 제7차 교육과정 문학 교과서의 경우 최종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는 총 18종이었는데, 이 표에서 제시한 수록 양상은 그 중 1차 검정을 통과한 11종의 문학 교과서(상)(하)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박기범, 앞의 논문, 2003, 103~104면.

5종	<p>꺼삐딴 리(전광용), 날개(이상), 논 이야기(채만식), 목걸이(모파상), 무너도(김동리), 변신(카프카), 유예(오상원), 치숙(채만식), 태평천하(채만식), 학(황순원)</p>	4종	<p>고향(현진건), 봄봄(김유정), 아큐정전(루쉰), 잉여 인간(손창섭), 서울 1964년 겨울(김승옥), 모래톱 이야기(김정한), 공산토월(이문구)</p>	4종	<p>봄봄(김유정), 사평역(임철우),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박태원), 엄마를 부탁해(신경숙)</p>		
4종	<p>관촌수필(이문구), 두 파산(염상섭), 만세전(염상섭), 병신과 머저리(이청준), 사랑손님과 어머니(주요섭), 삼대(염상섭), 서울 1964년 겨울(김승옥),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박태원), 암록강은 흐른다(이미륵), 어둠의 훈(김원일), 오발탄(이범선),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문열), 이반 테니소비치의 하루(솔제니친), 장마(윤홍길), 젊은 느티나무(강신재), 혈의 누(이인직), 혼불(최명희), 홍염(최서해)</p>	3종	<p>혈의 누(이인직), 금수회의록(안국선), 감자(김동인), 날개(이상), 미스터 방(채만식), 꺼삐딴 리(전광용), 역마(김동리), 태평천하(채만식), 멋진 신세계(허슬리), 변신(카프카), 유예(오상원),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윤홍길), 흐르는 북(최일남),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성석제), 황진이(홍석중), 외딴 방(신경숙), 출라체(박범신), 나마스테(박범신)</p>	3종	<p>금수회의록(안국선), 메밀꽃 필 무렵(이효석), 무정(이광수), 삼포 가는 길(황석영), 서울 1964년 겨울(김승옥), 여제자(하근찬)</p>	3종	<p>개밥바라기 별(황석영),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박태원), 황진이(홍석중)</p>

분석 대상으로 삼은 현대소설 제재 수가 7차 교과서에서부터 이번 2015 문학 교과서로 올수록 각각 447편, 349편, 199편, 110편으로 점점 줄었다. 또한 2009 문학 교과서가 총 13종이었던 데 비해 2012는 11종, 이번 2015는 10종으로 줄었기 때문에 중복 작품도 그만큼 줄어들었다. 다만 일부의 작품은 중복 비중에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 변화 양상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여러 번의 교육과정의 개편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비중 있게 다뤄진 현대소설 제재로는 최인훈의 「광장」, 조세희의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염상섭의 「만세전」,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을 들 수 있겠다. 이로써 이들 작품은 우리 문학교육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소설로 현대소설 대표작이라고 할 만하다.

이 외에 채만식의 「태평천하」와 박경리의 「토지」,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정도가 교육과정기마다 조금씩 부침이 있기는 하지만 줄곧 문학 교육 현장에서 비중이 높게 활용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이번 새 문학 교과서에서는 양귀자의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아 한다」가 가장 크게 부각되었다. 2015 교육과정에서 여러 가지 성취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제재인 테다가 오늘날의 학생들이 무난하게 접할 수 있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많은 교과서에서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홍석중의 「황진이」도 북한 문학 작품으로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역사적인 인물에 관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선택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이전 교과서에서 한창 인기를 끌었던 신경숙의 작품들은 최근의 표절 논란으로 인해 이번 교과서에서는 한편도 수록되지 못했다.

신소설로는 이인직의 「혈의 누」가 유일하게 수록되었다. 직전의 교과서에서는 안국선의 「금수회의록」이 선호되었던 점에서 다시 자리바꿈을 하였다. 한편, 이광수의 「무정」은 지난 7차 때와 2009 때에는 많은 교과서에 수록되어 주요하게 다뤄졌는데, 이번 새 문학 교과서에서도 직전의 2012 때와 마찬가지로 1종의 교과서에서만 다뤄지고 있다. 교육과정 축소에 따른 작품 수록편수의 축소에 직면하자 교과서 개발진에서 가장 먼저 제외된 작품에 들었

던 것은 결국 친일 작가 이광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작용하지 않았나 짐작된다.

또한 이번 새 문학 교과서에서 작품 수록 편수가 줄게 되면서 지난 교육과정기의 문학 교과서에서 주요하게 다뤄졌던 김동인, 최서해, 김동리, 김정환, 손창섭, 이문열, 하근찬, 김원일 등의 작품들이 한편도 실리지 않았다. 이들의 작가의 문학사적 위치를 감안할 때 10종의 문학 교과서에서 한편도 수록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다음으로 작가 측면에서 다수의 작품을 수록한 작가는 [표 4]와 같다.

[표 4] 2015 교육과정 문학 교과서의 다수 작품 수록 현대소설 작가

	작가(작품)
8종	조세희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 은강 노동 가족의 생계비)
6종	박완서 (겨울 나들이, 그 여자네 집,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엄마의 말뚝2, 자전거 도둑, 해산 바가지) 성석제 (내가 그린 히말라야시다 그림, 아무도 모르라고, 처삼촌 묘 별초하기, 투명 인간,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5종	이효석 (배밑꽃 필 무렵) 채만식 (눈 이야기, 미스터 방, 태평천하)
4종	김애란 (도도한 생활, 두근두근 내 인생, 입동) 양귀자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염상섭 (만세전) 최인훈 (광장)
3종	김승옥 (서울 1964년 겨울, 역사) 김훈 (남한산성, 칼의 노래) 박태원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이문구 (우리 동네 황 씨, 유자소전) 홍석중 (황진이) 황석영 (개밥바라기 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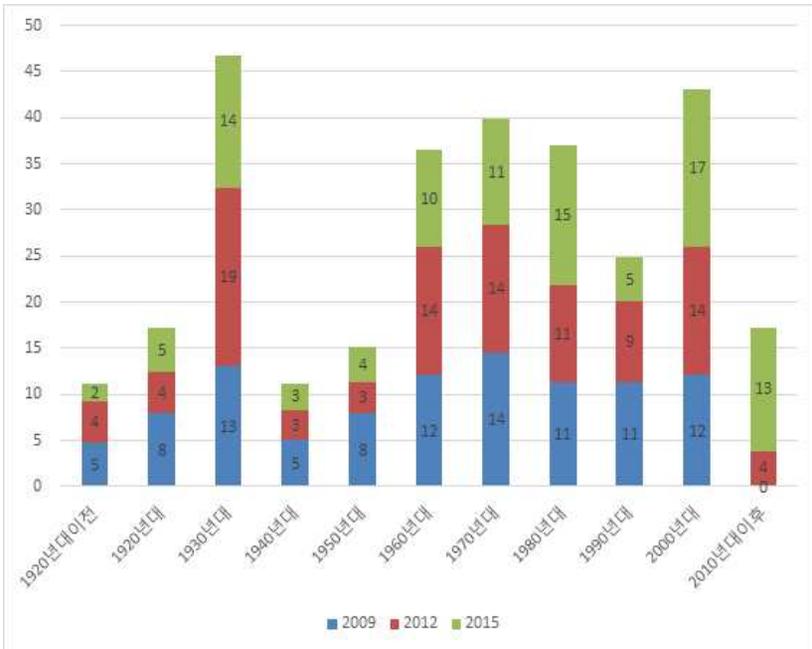
이 중에서 교과서 중복을 빼고 수록 작품 수만 따져 보면, 가장 많은 작

품이 수록된 작가는 박완서로 6편의 소설이 교과서에 실려 있다. 박완서의 경우에는 예전부터 꾸준히 다수의 작품이 수록된 작가였는데, 이번에도 그의 다양한 작품이 활용되게 되었다. 이를 볼 때, 그만큼 문학교육의 관점에서 그의 작품이 여러 가지 면에서 효용 가치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성석제의 작품이 무려 5편이나 수록되었는데, 이는 이번 2015 문학 교과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는 점이라 하겠다. 그동안 꾸준히 성석제의 작품들이 교과서에서 선을 보이기는 했지만, 이번에는 다양한 성취기준과 관련하여 그의 작품이 활용되었다. 이와 함께 김애란의 작품도 3편이나 소개되고 있어서 이들이 지금 현재, 현역 작가로서는 문학교육적으로도 가장 인기가 있는 작가라 할 수 있겠다. 아마도 이들 작품이 오늘날의 학생들에게 참신하고도 흥미롭게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선택된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전반적으로 과거의 문학 교과서에 비해 수록 작품의 다양성이 줄어든 가운데 특히 김유정, 이태준, 황순원, 이청준, 이호철, 윤홍길의 작품들의 수록이 많이 준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폭넓은 작품 세계를 가지고 있는 작가들 중에서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 염상섭의 「만세전」,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등은 다수의 교과서에 동일 작품만 중복해서 실려 있어서 이들의 문학 세계를 다각도로 조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띠고 있어서 아쉬웠다.

그리고 작가의 성별과 관련하여 볼 때, 여성 작가는 전체 52명 중 14명으로 27% 정도가 되었다. 이는 지난 2009와 2012 때의 문학 교과서가 18% 정도였던 것과 비교할 때 많이 늘어난 수치이다. 공선옥, 박경리, 박완서, 양귀자, 은희경, 이남희의 작품은 이전부터 수록되었고, 새로 금희, 김숨, 김애란, 서유미, 정이현, 최은영, 한강의 작품이 수록되었다. 이번 2015 문학 교과서는 작품 수만큼이나 작가도 과거에 비해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작가의 작품의 비중이 커진 점은 고무적이다. 다만 표절 사건으로 인해 이전 교과서에서 많이 다뤘던 신경숙의 작품이 제외된 점과 오정희, 최윤, 공지영의 여성 정체성 탐색과 양성평등에 관한 작품이 수록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대목이었다.

새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현대소설 제재 중 한국 문학 작품 105편을 대상으로 발표 연대별로 정리해 보았더니, 1920년 이전 작품이 2편, 1920년대 작품이 5편, 1930년대 작품이 15편, 1940년대 작품이 3편, 1950년대 작품이 4편, 1960년대 작품이 11편, 1970년대 작품이 12편, 1980년대 작품이 16편, 1990년대 작품이 5편, 2000년 작품이 18편, 2010년대 작품이 14편으로 나타났다.¹¹⁾ 이를 지난 2009, 2012 때의 문학 교과서와 비교해 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이 그림에서는 한국 소설 작품만을 대상으로 전체 작품 중 해당 연대의 작품 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백분율로 나타내어 비교해 본 것이다.



[그림 3] 2009~2015 문학 교과서 현대소설 제재 연대별수록 비중

11) 발표 연대별 비중을 알아보기 위해 같은 작품이 여러 교과서에 중복 수록된 경우에도 별개의 작품으로 간주하여 집계하였다.

1930, 1960, 1970, 1980, 2000년대의 작품이 다른 연대에 비해 많은 반면, 1940, 1950, 1990년대의 작품이 적은 것은 우리 문학과와 조응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일제 탄압으로 인한 1940년대와 한국전쟁으로 혼란기를 겪었던 1950년대의 작품이 비교적 적게 수록된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으나, 1990년대의 작품이 적게 수록된 이유는 무엇일까. 사회 변혁기였던 1980년대가 지나고 동구권의 몰락으로 인한 탈 이념화 현상이 나타나고, 인터넷과 컴퓨터의 보급으로 세계화 정보화가 이뤄졌으며, 문화의 다양성과 다원성으로 포스트모더니즘과 탈근대적인 경향이 강화되는 1990년대의 특성상 문학교육에서 활용할 만한 소설 작품이 그 전후의 시기보다 적었기 때문일 것이다. 윤대녕, 김영하, 신경숙, 공지영 등이 그 당시 대표적인 소설가였지만 이들의 작품을 중고등학생들에게 가르치기에는 무리가 있는 반면에, 장석남, 유하, 허수경, 최승호와 같은 당대의 시인들이 개인과 일상, 도시 공간과 물신화된 삶의 문제를 다룬 서정 작품이 더욱 활용 가치가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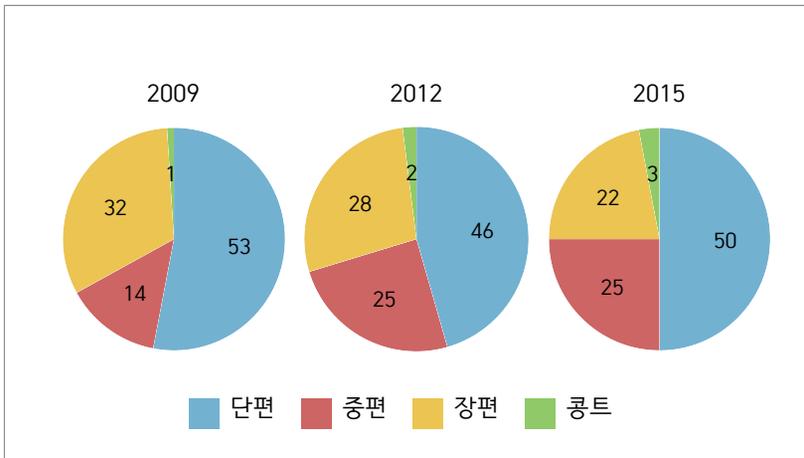
이번 2015 문학 교과서는 전체적으로 작품 수가 줄었던 영향으로 이전 시기의 문학 교과서에 비해 연도별로 편차가 크지 않았다. 그래서 과거보다 1930년대와 1960~70년대의 작품이 많이 줄어든 반면에 2000년대 이후의 작품이 많아졌다. 이는 앞서서도 여러 번 언급한 바와 같이 검정 교과서 체제에서 오늘날의 학생들이 비교적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작품을 선정하려는 경향이 더욱 강화된 결과로 분석된다.

다음으로 외국 문학 작품의 비중을 살펴보았더니, 전체 110편 중 5편(4.5%)만이 수록되었는데, 이는 2009 때의 16.6%와 비교하면 매우 적은 비중이 아닐 수 없다. 2009 때의 문학 교과서가 <문학 I>과 <문학 II>의 두 권 체제로 수록된 현대 소설 작품 수만 349편이나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직전의 2012 문학 교과서에서 전체 199편 중 19편(9.5%)이 외국 문학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너무 축소된 것을 알 수 있다. 교과서 분량을 제한하다보니 수록 작품 수가 이전보다 많이 축소될 수밖에 없었던 연유가 있었지만, 그래도 이처럼 외국 문학 작품의 급격한 감소는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12) 신동욱 편저, 『한국 현대문학사』, 집문당, 2004, 499-522면.

세계화 시대에 맞춰 인류 공동의 문화유산인 훌륭한 외국 문학 작품을 수용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했던 이전 문학 교육과정의 취지가 퇴색해 버린 것 같아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선정된 작품의 길이 유형이나 수록 방식을 살펴보면, 단편이 55편, 중편이 28편, 장편이 24편, 콩트가 3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를 지난 2009, 2012 때의 문학 교과서와 비교해 보면 다음 [그림 4]와 같다. 이는 전체 110편 중 해당 길이의 작품 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백분율로 나타내어 비교해 본 것이다.



[그림 4] 2009-2015 문학 교과서 현대소설 제재 길이별 수록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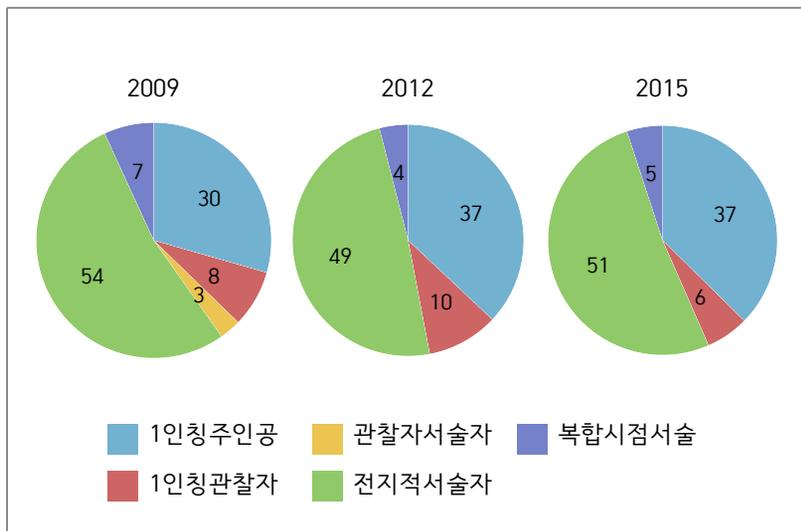
[그림 4]를 보면 2009 때에 비해 2012와 2015의 문학 교과서에서는 장편이 적어진 대신 중편이 늘었으며, 콩트가 점점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이 역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번 새 문학 교과서에서는 분량의 제한이 컸던 것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여전히 작품의 전문을 제시한 것이 4편(3.6%)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생략된 부분의 줄거리나 전체 줄거리를 통해 보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특히 아직도 전체의 22.2%의 작품이 생략된 부분의 줄거리나 해설 없

이 부분의 일부분만 발췌해 놓고 있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다만 직전의 2012 문학 교과서가 35.7%였던 것보다는 개선되었다.

또한 학습 활동으로 제시된 것을 제외하고 소단원의 주요 제재로 활용된 작품만을 대상으로 이번 문학 교과서에서 현대소설 제재로 인용된 분량은 평균 4.8쪽이었다. 이는 2009 때 교과서가 평균 5.2쪽이었던 것에 비해서는 조금 적은 편이지만 직전의 2012 때 평균 4.1쪽보다는 많이 개선된 것으로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할 만하다.

다음으로 시점과 서술 유형을 살펴보면, 시점 유형을 잘 알려진 브룩스와 워렌의 방식에 따라 분류했을 때, 1인칭 주인공 시점이 47편, 1인칭 관찰자 시점이 7편, 관찰자로서의 서술자 시점은 없고, 전지적 서술자 시점이 56편, 기타 액자 구성처럼 복수의 시점이 혼용된 경우가 6편이었다. 그리고 이를 지난 2009, 2012 때의 문학 교과서와 비교해 보면 [그림 5]와 같다. 이는 전체 110편 중 브룩스와 워렌 시점 분류에 따라 각 유형의 비중을 백분율로 나타내 비교해 본 것이다.



[그림 5] 2009-2015 문학 교과서 현대소설 제재 길이별 수록 비중

[그림 5]를 보면 이번 2015 문학 교과서는 지난 2012 때의 교과서와 비슷한 시점-서술 유형의 소설들을 수록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2009 때보다는 1인칭 시점의 소설들이 다소 늘었고, 액자 구성 소설의 축소에 따라 복수 시점이 줄었으며, 전지적 서술자 시점도 줄었다. 또한 지난 2012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관찰자로서의 서술자 시점의 소설은 없었다. 교육적 효용성을 고려할 때 관찰자로서의 서술자 시점이 없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하지만 이것은 브룩스와 워렌의 시점 유형이 가지는 한계로 이보다는 더욱 정교한 시점-서술 이론이 교육 현장에서 도입할 필요성을 제시해 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시점-서술과 관련하여 눈에 띄는 것은 성석제의 「투명 인간」과 한강의 「채식주의자」와 같이 인용된 부분만으로는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분류하게 되지만, 작품 전체를 두고 보면 여러 명의 서술자에 의한 다중 시점-서술을 보이는 새로운 서술 형식을 보이는 소설이 선보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작품을 통해 오늘날 현대 소설 작품의 다양한 서술 방식과 그 미학적 효과를 교육 현장에서 다루게 되었다는 점은 무척 고무적인 변화라고 생각된다.

4. 새 문학 교과서의 현대소설 제재 수록의 특징과 개선 과제 탐색

여기서는 앞에서 살펴본 현대소설 제재 선정 양상과 수록 작품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새 문학 교과서의 현대소설 제재 수록의 특징을 정리해 보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점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는 현행 문학 교과서에 대한 평가와 함께 이후의 문학 교과서를 개발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유의점을 얻기 위해서도 필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먼저 교육과정의 내용과 관련하여 작품 선정 양상을 살펴본 결과, 새 문학 교과서들은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와 성취기준을 대체로 충실히 구현하고

있었다. 특히 새로 개정된 교육과정에서는 문학이 인문, 예술, 사회, 과학, 대중문화, 스포츠 등 여러 인접 분야와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소통되는 오늘날의 문학 현상을 반영하기 위해 원작 소설과 관련된 대중매체(영화, 드라마, 만화, 인터넷 포털, SNS 등)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또한 한국 문학의 미래와 발전상을 탐구하는 것에도 관련지어 다양한 문학 소통 양태를 공부하도록 유도하고 있었다.

문학의 보편성 측면에서 외국 문학 작품과 상호텍스트적 맥락으로 엮어서 수용하거나 인성 발달과 관련하여 자아 성찰과 타인 이해,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 사이의 정서적 교류를 다루는 작품이 꾸준히 수록되었다.

또 북한 문학과 해외 동포 문학이 지속적으로 수용되고 있으며, 다문화 사회를 반영한 작품들이 활용되었다. 하지만 분량의 제한으로 인해 직전의 문학 교과서에서 새롭게 강조되었던 사회적 약자, 생태, 미래 사회 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작품들은 많이 축소되었다.

다음으로 소설 이론에 대한 학습 내용 요소와 관련하여 작품 선정 양상을 살펴본 결과, 지난번의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각 내용 요소마다 그 내용을 학습하기에 적합한 동일 성격의 작품들이 많이 활용되는 경향이 있었다. 즉 인물에 관한 학습에는 풍자소설, 역사전기소설, 인물 탐구형 소설, 세대 비판 소설, 리얼리즘 계열의 소설들이, 시공간에 관한 학습에는 여로형 소설과 농촌 소설이, 플롯에 관한 학습에는 액자소설이 많이 활용되었다. 그리고 담론적 요소의 학습에는 1인칭 시점 서술을 취하는 소설들이, 사회·역사·문화적인 맥락에 관한 학습에는 리얼리즘 계열의 작품들이 많이 활용되었다. 한편 내용 요소별 학습 활동의 비중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야기적 요소가 가장 높고, 맥락적 요소, 담론적 요소 순이었으나 그 차이는 점점 줄었다. 특히 이번 새 문학 교과서에는 디지털 문학, 통일 이후의 문학, 세계 문학과 비교, 창작 교육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현대소설 관련 내용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학습 내용이 크게 늘었다는 특징을 보였다.

수록 작품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다양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전의 2009와 2012 교육과정 때와 비교하여 수록 작

품과 작가의 비중이 다소 변화하였는데, 가장 아쉬운 부분은 이전보다 수록 작품 수가 전체적으로 많이 줄어서 주요 작가들의 작품과 외국 문학 작품이 많이 빠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다만 오늘날의 학생들이 친숙하게 여길 만한 최신작과 여성 작가의 작품들이 많이 소개되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되었다. 또한 생략된 부분의 줄거리나 전체 줄거리를 제시하여 일부 인용에 따르는 문제를 보완하는 노력이 이전에 비해 늘었으며, 인용된 지면의 분량도 늘었다. 그리고 시점과 서술 면에서도 이전보다 더 다양한 서술 방식을 취하는 작품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어서 소설의 형식 미학적 탐구를 도모하도록 하는 노력이 늘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었다.

그럼, 이제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문학 교과서의 현대소설 제재 선정과 관련하여 개선해야 할 과제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의 세부 내용과 관련하여 작품을 선정한 결과를 보면, ‘한국 문학의 개념과 범위’와 ‘한국 문학과 외국 문학’의 내용 요소와 관련된 작품이 가장 적었다. 이는 교육과정의 내용을 충분히 뒷받침할 만큼 소설 작품 제재나 학습 활동이 개발되지 않았다는 점을 방증한다. 앞으로는 이와 관련하여 더 많은 학습 내용이 구안될 수 있도록 관련 작품을 발굴하고 학습 활동을 창안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일부 교과서는 문학과 매체의 다양한 교섭과 소통을 다루면서 정작 원작이 되는 소설의 본문은 제시되지 않은 채 영화 시나리오나 그림(사진, 만화)만 제시하기도 하였는데, 문학과 매체 각각의 특성과 장·단점을 더욱 면밀하게 비교하기 위해서는 두 작품을 같이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교육과정에 명시된 것처럼 환경, 다문화, 사회적 약자와 같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의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현재보다 이들 문제와 관련된 작품을 더 많이 수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설 이론에 대한 학습 내용 요소와 관련하여 작품을 선정한 결과를 보면, 예전보다 다소 많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시점, 서술, 문체와 같은 담론적 요소가 이야기나 맥락 요소에 비해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많이 활용되는 브룩스와 워렌의 시점 이론에 따를 때 관찰자로

서의 서술자 시점에 해당하는 작품이 하나도 없다는 점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앞으로 예술 양식으로서 소설의 형식적 측면인 담론적 요소에 관한 학습이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시점과 서술의 양상을 보여 주는 작품이 선정될 필요가 있다.

셋째, 분량의 제한으로 인해 작품의 일부만 발췌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번 교과서에서도 여전히 줄거리 없이 인용하는 교과서가 있었다. 이는 자칫 파편적인 작품 이해와 편의적인 감상 방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쉽게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특히 생략된 부분의 줄거리조차 없이 작품의 일부만 제시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 물론 앞으로 디지털 교과서 체제가 보편화되면 교과서 지면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지금보다 전문을 제시하기에 용이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단편소설 위주에서 벗어나 중편이나 장편소설까지 더 많이 다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 교과서 정책의 정착과 더불어 검정 교과서를 간행한 출판사의 누리집(homepage)과 교육 애플리케이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작품 전문을 학생들이 읽을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넷째, 학습자의 학습 부담감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지나치게 교과서 분량을 제한하여 교과서에 수록하는 작품 수가 계속해서 줄고 있는 점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 문학사에서 문학교육적 가치를 지닌 많은 작품이 교과서 분량의 제한 때문에 다루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또한 오늘날과 같이 국제화, 세계화된 시대에 외국의 훌륭한 문학 작품들을 문학교육 현장에서 접하지 못하는 것도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다. 그러므로 향후에는 수업 시간에 모두 다뤄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서 교과서의 위상과 활용 범위를 좀 더 넓게 보아 인류 공동의 문화적 정수(精髓)에 해당하는 가치 있는 작품들을 수록한 작품집(anthology)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교과서가 나오길 바란다.

5. 맺음말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를 책임 맡고 있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출한 보고서¹³⁾에 따르면, 전국의 150개 고교의 국어 교사들을 대상으로 이번 2015 국어과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선택과목 중에서 일반고에서 가장 많이 가르칠 것으로 예상되는 과목에 대해 설문한 결과 278명이 아래와 같이 응답하였다고 정리하였다.

가장 많이 가르칠 것으로 예상되는 과목(복수 응답)(국어과)

(단위: 명%)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실용 국어	심화 국어	고전 읽기
34(6.2)	142(25.8)	53(9.6)	262(47.6)	20(3.6)	26(4.7)	13(2.4)

이처럼 올해부터 우리나라 전국의 일반고에서 선택과목으로 수업할 가능성이 높은 과목으로 교사들은 <문학>을 가장 많이 꼽았다. 각 학교에서는 이미 작년 하반기에 선택과목을 정해서 교과서 주문에 들어갔을 것이므로 그 선택 결과에 따른 통계가 조만간 밝혀지겠지만, 선택과목에 대한 결정 과정에서 수업 교수자인 교사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 보고서에서 응답한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통적으로 국어과 수업에서 <문학>은 줄곧 주요 영역이자 선택과목이었다. 이는 문학이 다른 선택과목에 비해 대학입시에 더 유리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보다 더욱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교사나 학생들이 다른 과목보다 문학을 더 좋아한다는 점 때문이다.

문학의 다양한 갈래 중에서도 특히 현대소설은 대다수 사람들이 좋아하는

13) 박은아 외,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 적용 방안(II)-일반고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17-3, 2017, 94면.

이야기로서 특히 학생들이 선호하는 갈래이다. 그뿐만 아니라 현대소설은 우리들에게 오늘날을 살고 있는 인간의 수많은 경험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인간과 삶에 대해서 알게 하고, 바람직한 삶의 조건을 생각하게 해 준다. 소설은 다양한 정서적 경험과 심미적 경험을 제공하고, 상상력을 키워주며, 현실 세계의 가치를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생각하게 해 준다. 따라서 근대교육이 시작된 이래 줄곧 주요한 학습 내용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앞으로 수시로 개정되는 교육과정 속에서도 현대소설은 여전히 중요한 교육 제재로 활용될 것이다. 그러므로 국어교육과 문학교육의 이념과 목표를 실현하고, 학교 현장의 교수·학습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현대소설 제재를 더욱 더 체계적이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자료

- 김동환 외, 『문학』, 천재교과서, 2018.
김창원 외, 『문학』, 동아출판, 2018.
류수열 외, 『문학』, 금성출판사, 2018.
방민호 외, 『문학』, 미래엔, 2018.
이승원 외, 『문학』, 좋은책신사고, 2018.
정재찬 외, 『문학』, 지학사, 2018.
정호웅 외, 『문학』, 천재교육, 2018.
조정래 외, 『문학』, 해냄에듀, 2018.
최원식 외, 『문학』, 창비, 2018.
한철우 외, 『문학』, 비상교육, 2018.

2. 논저

- 신동욱 편저, 『한국 현대문학사』, 집문당, 2004, 499~522면.
박기범,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문학 교과서의 내용 분석 연구」, 『문학교육학』 제11호, 한국문학교육학회, 2003, 83~120면.
박기범, 「시점 - 서술 교육의 반성과 개선 방향」, 『국어교육학연구』 제31집, 2008, 국어교육학회, 323~356면.
박기범,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의 현대소설 제재 분석」, 『문학교육학』 제37호, 한국문학교육학회, 2012, 185~219면.
박기범,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의 현대소설 제재 분석」, 『한국언어문학』 제89호, 한국언어문학회, 2014, 193~222면.
박은아 외,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 적용 방안(II)-일반교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17-3, 2017, 94면.
교육부,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 5] (국가교육과정센터 자료실 www.ncic.go.kr)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과서검정센터 홈페이지 정보마당
(http://tbh.kice.re.kr/rp/rp002_01View.do)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용도서 개발을 위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 140-144면. (검색일:
2019. 1. 10)

【Abstracts】

An Analysis of Modern Short Stories and Novels in Literature Textbooks

—Focused on the 2015 Revised Curricular High School Textbooks—

Park, Kibeom(JeonJu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contemporary novels in 10 new literature textbooks for high school. After examining the curriculum, I analyzed what kind of works were selected in relation to the details of the curriculum and what kind of works were selected in relation to the elements of learning contents related to novels. In addition, the characteristics of new textbooks were analyzed in terms of new works, changes in the weight of works and writers, presentation ages, foreign literatures, lengths and types of story lines, and types of viewpoints and descriptions.

Next, I propose the improvement tasks of literature textbooks as follows.

1. Since there are few works related to the contents and contents of 'Korean Literature' and 'Korean Literature and Foreign Literature' among the content of the curriculum, related works should be sought so that more learning contents can be developed in the future.

2. There are few discourse elements such as viewpoints, narratives, and style in learning contents of novel theor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elect works that show more various viewpoints and descriptions.

3.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digital textbook policies and actively utilize the books and educational applications of the textbook publishers

to provide their works.

4. It is necessary to save a lot of foreign literary works from the limit of the amount of textbooks.

Key words : literature textbook, modern short stories and novels, the 2015 revised curriculum, selection of literary works, analysis of literary works in literature textbooks

이 논문은 2019년 06월 19일에 투고되었으며, 2019년 07월 14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9년 07월 16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